



눈먼 이를 이끄는 눈먼 이
피터르 브뤼헬 더 아우더
(Pieter Bruegel de Oude, 1525 경-1569)
1568, 템페라, 86x156cm
카포디몬테 미술관, 이탈리아 나폴리

입당송 | 시편 18(17),19-20

주님은 내 버팀목 되어 주셨네. 내가 그분 마음에 들었기에, 넓은 들로 이끄시어 나를 구하셨네.

제1독서 | 집회 27,4-7

화답송 | 시편 92(91),2-3,13-14,15-16(◎ 2ㄱ 참조)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아침에는 당신 자애를,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나이다. ◎

○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우거지리라. ◎

○ 의인은 늙어서도 열매 맺고, 물이 올라 싱싱하리라. 불의가 없는 나의 반석, 주님이 올곧으심을 널리 알리리라. ◎

제2독서 | 1코린 15,54-58

복음환호송 | 필리 2,15.16 참조

◎ 알렐루야.

○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녀라. ◎

복음 | 루카 6,39-45

영성체송 | 시편 13(12),6 참조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이름 찬양하리이다.

‘내로남불’과 ‘마음의 선한 곳간’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 서울대교구장

오늘 우리는, 루카복음 6장 예수님의 ‘평지 설교’의 한 부분을 복음으로 들었습니다. 첫 부분은 ‘형제 눈 속의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내용이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마태오복음의 ‘산상 설교’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작은 차이점은, 마태오복음은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언급하신 다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7,19)라는 심판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 데 반해, 오늘 루카복음에서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언급 후에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6,45)라고 ‘마음의 문제’로 결론을 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잠시 마태오복음의 ‘산상 설교’에 나오는 참된 행복 선언을 떠올려 봅시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반면에 루카복음의 행복 선언에서는 단순히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요. 희랍어 원문의 표현을 찾아보면, 오늘 루카복음에서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라고 ‘마음의 문제’를 언급할 때 ‘마음’은 ‘심장’(καρδιά, 카르디아)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마태오복음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할 때의 ‘마음’은 ‘영’(πνεῦμα, 프네우마)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성경의 세계에서 ‘심장’은 ‘육체적 생명의 자리’로 이해되고, ‘영’은 ‘육체에 생명을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상통하는 면이 없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복음의 첫 부분을 다시 봅시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6,41)는 예수님의 아픈 질타를 묵상하면서, 어찌면 이런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공통된 인간 속성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내로남불’을 넘어서서, 마음에 선한 곳간을 가꾸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6,45) 이기적이고 나쁜 우리가 선한 마음의 곳간을 짓기 위해서는 하느님 영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마음의 선한 곳간’을 넓혀가려는 우리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겸손되이 하느님 성령의 도우심을 청해 봅시다.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아멘.”



눈먼 이

피터르 브뤼헬은 섬세하고 날카로운 비유로 현실을 풍자하여 화폭에 담았습니다. 당대 지배층에 대한 사회상이 반영된 이 작품과 주제는 다른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눈먼 이들의 다양한 안구 질환을 묘사할 뿐 아니라, 얼굴을 쳐들어 시각 대신 후각과 청각에 의지하는 그들의 습관까지도 그려냅니다. 눈먼 이들은 지팡이가 있음에도 앞사람만을 의지합니다. 인도자는 이미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자기성찰 없는 판단과 맹목적 추종은 나쁜 아니라 곁에 있는 이들도 위태롭게 합니다. 우리는 스승이신 분께 배워야 합니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메테오라에서 만난 예수님



정미연 아기 예수의 데레사 | 성화 작가

누구에게나 쿵쿵 가슴 뛰게 했던 일이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15년 전, 사도 바오로의 길을 따라 그리스와 튀르키예로 떠났던 성지순례가 그랬습니다. 성지 가운데에서도 가장 가슴 뛰었던 장소는 그리스의 메테오라였습니다. 황량한 벌판에 돌연 솟아오른 듯한 거대하고도 기묘한 바위 기둥들이 눈 앞에 펼쳐지는 순간 심장이 뛰고 피가 웅숭웃치는 것 같았습니다. 좁은 바위 위에 아찔하게 세워져 있거나 깎아지른 절벽 위에 붙어 있는 수도원은 경이롭고 신비롭기까지 했습니다. 바위 사이 구름다리 형태의 계단을 올라 마주한 트리니티 수도원은 짜릿함의 극치였습니다. 아름다운 이콘화로 꾸며진 성당 내부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신적인 공간으로 다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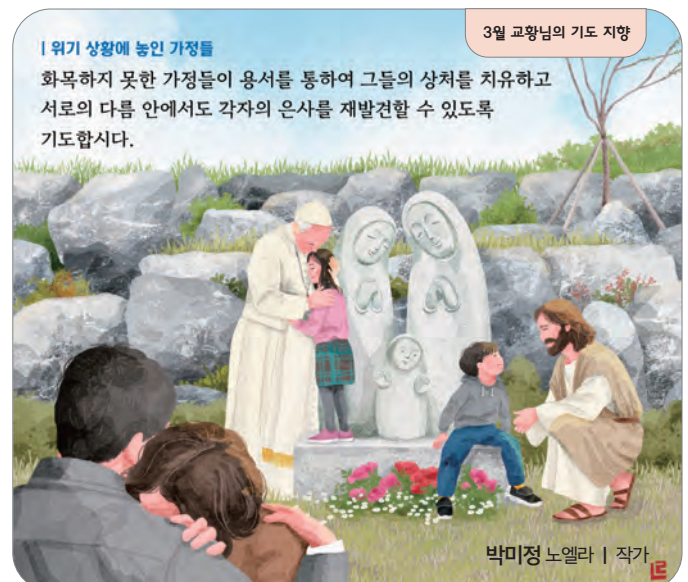
‘왜 이토록 높은 곳에 수도원을 지었을까?’ 기적이 공공연히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메테오라의 이곳저곳을 열정적으로 스케치하며 달려온 마지막 날, 2평 남짓한 작은 경당에 들어갔습니다. 정면에 등신대 높이의 황금빛 십자가가 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찌 그리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던지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나온 삶의 마디마디 맺혀 있던 아픈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갔습니다.

젊은 시절, 저와 10살의 나이 차이가 나고 왼손이 없는 열정의 청년 화가를 사랑했던 저는 큰 벽에 부딪쳐야만 했습니다. 저를 끔찍이도 사랑했던 막내 오빠가 담판을 내자며 불같이 화를 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겁없이 대들었습니다. “육체의 장애보다 더 무서운 장애는 왜 보이지 않느냐? 젊은 두 사람이 한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이루지 못할 게 뭐냐?” 순간 오빠 손에 들려 있던 각목이 부서지

고 제 입에선 비명이 새어 나왔습니다. 짙은 어두움이 주변을 감싸고 있을 때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제 등에 닿았습니다. “네가 12폭 치마로 그를 감싸고 살 수 있다면 엄마는 괜찮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12폭 치마를...”

그 어머니의 딸은 또 자신이 딸을 낳고 갱년기가 지나 50대 후반의 여자가 되어, 온전히 펼치지 못한 아쉬운 꿈들과 열망의 끝자락에서 슬픈 눈의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흐르는 눈물과 콧물을 내버려둔 채 얼마나 긴 시간이 지났을까요. 따뜻하게 감싸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저의 영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동안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고마운 분들을 위해 가느다란 밀납초를 하나 하나 밝혔습니다.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저는 촛불의 향연이 빚어내는 축복의 시간을 영원처럼 즐겼습니다.

15년 전 메테오라에서 만난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저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정성스레 화폭에 담습니다.



자살의 위험에서 생명을 지켜 주세요



복지관에 근무하는 이은혜 사회복지사는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성곽길 꼭대기 단칸방에서 홀로 살고 있는 황 바오로(가명, 70세) 할아버지께서 자신의 옷가지와 물건 등을 정리해 달라며 거신 전화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부탁에 이상한 생각이 든 복지사는 할아버지를 찾아가 왜 물건들을 정리하시려는지 계속 여쭙았고, 끝까지 말씀을 안 하시던 할아버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제 갈라고... 줍고 아파서 더는 못 살겠어.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나 좀 도와줘.” 먹먹함에 한동안 할 말을 잃은 복지사는 눈물을 꺾 꺾 참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아 드렸습니다. 추운 겨울, 냉기가 도는 골방에서 고통과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마음을 먹기까지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2021년 기준)은 10만 명당 24.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2021년 이후 다소 감소하였다가 최근 다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취약 계층이 밀집한 지역에서 자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2013년부터 CS생명존중문화만들기 사업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 활동가 양성 및 활동, 자살 예방 캠페인, 전인적 돌봄 사례관리, 자살 위험자 집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살의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 위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자살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가톨릭의 생명 정신이 담긴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황 바오로 할아버지는 구체적인 자살 계획까지 세우셨지만, 담당 사회복지사가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CS생명존중문화만들기 사업을 통해 생명 존중의 중요성, 자살 관련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받은 사회복지사와 활동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살할 생각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물어 위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처합니다. “걱정도 많고 아픈 곳도 많아 빨리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들어.”, “하루 종일 혼자였는데, 만나러 와 주는 사람이 있으니 좋아. 밥도 맛있고, 밤에 잠도 잘 자.” 이제 황 바오로 할아버지는 자신을 찾아와 주고, 함께 밥도 먹을 수 있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선물은 ‘생명’입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이 여리고, 가난하고, 늙고, 외로운 사람들이 그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주변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803-271075 (재)바보의나눔

3월 1일~4월 4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CS생명존중문화만들기’ 후원 사업을 위해 씁니다.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재)바보의나눔에서 발급합니다.

무통장입금 후,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해 주세요. (입금자와 세액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이 일치하도록 입금 부탁드립니다, 입금일과 입금액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① 우측 QR코드 입력 ② 인터넷 신청: www.babo.or.kr/hand ③ 전화 신청: 02)727-2508 (재)바보의나눔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재)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의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내의 가톨릭 사회복지 단체를 후원합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는 동성애자의 신학교 입학에 관하여



방종우 야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윤리신학 교수

올해 1월 이탈리아 주교회의는 새로운 〈신학교를 위한 지침과 규범〉을 발표했습니다. 규범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 관해, 교회는 당사자들을 깊이 존중하면서도, 실제로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람들, 뿌리 깊은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 또는 이른바 게이 문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신학교나 성품에 받아들일 수 없다.”(44항)

그럼에도 언론은 교황청이 성관계를 하지 않는 동성애자의 신학교 입학을 허용했다고 앞다퉀 보도했습니다. 그 근거는 이어지는 내용 때문입니다. “사제 후보자 양성의 목적은 독신 생활의 순결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이는 신학생 양성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자유와 책임의 교육에 대한 권고일 뿐이지만, 언론에서 뒷부분만 편집해 책임 있게 순결을 지킬 경우 신학교 입학이 가능하다고 왜곡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 주교회의는, “언론의 해석은 옳바르지 않다. 동성애자의 사제직 불허에 관한 규범은 변함없다.”(2025년 1월 10일 자 ‘아베니레’ 신문)고 대응했습니다.

물론 교회는 동성애 ‘성향’과 ‘행위’를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동성애 성향이 있는 이들에게는 죄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개인의 의지가 없기 때문입

니다. 한편 의지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습니다.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목적을 결여한 행위이며, 성서에서도 이를 극심한 부패 행위로 단죄하고 있고, 하느님을 배척하는 슬픈 결과를 내는 것으로까지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목적 차원에서 동성애자의 개인적 어려움과 사회에 대한 부적응을 극복하려는 희망을 북돋아 주어야”하며 “동성애자들이 폭력적인 적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것은 개탄할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동성애 ‘행위’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 윤리상의 특정 문제에 관한 선언〉)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사랑과 자비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선의 부재, 계명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느님의 사랑은 회개한 이들에 대한 자비, 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애달픈 기다림이지 무분별한 사랑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성애 성향만으로도 신학교 입학이 허가되지 않음을 교회는 분명히 해왔습니다. 특수한 성향이 죄가 아니라도 그것은 윤리적 악으로 기울어지는 다소 강력한 경향이기에, 그 성향 자체는 하나의 ‘객관적 무질서’로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뿌리 깊은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서품에서 비롯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식사 전 기도의 용기



윤소영 유스티나 | 청년꾸르실로 체험 및 봉사자

몇 년 전, 원하던 회사에 취업을 하고 팀 발령을 받아 처음으로 팀원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식사 전 기도를 바치는 것이 습관이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성호를 긋는 것이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모든 것이 눈치 보이는 첫 직장에서, 혹시나 성호를 크게 그었다가 누군가에게 거부감이라도 줄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팀 선배가 먼저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용기가 생겨 따라서 굿고 식사 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끝내니 다른 팀원들이 저에게 성당에 다니는지 물어보더니 자연스럽게 성당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팀장님의 어머니께서도 성당을 다니고 계셨고, 다른 팀원도 가톨릭 신앙과 인연이 있었습니다. 긴장했던 첫 식사 자리의 따뜻한 감싸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의 어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전에는 식사 전 기도를 할 때 손바닥에 작게 성호를 그리는 것으로 대신했으나, 제가 첫영성체 교리를 들을 때 함께하셨던 부모 교리 시간 때 “성호는 크게 그어야 한다.”는 수녀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 한 약속대로 크게 성호를 굿기 시작하셨답니다. 초등학교 특성상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매일 성호를 긋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게 되었는데, 이를 보고 어떤 아이는 “선생님, 방금 하신 게 뭐예요?”라며 궁금해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선생님, 저도 사실

성당 다녀요.”라며 부끄러운 듯 와서 속삭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어머니는 가톨릭 신자답게 더 바르고 단단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 노력하셨다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호경을 굿고 바치는 식사 전 기도는 아주 짧은 기도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이 어려울 뿐 막상 시작하면 계속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기도는 일상 안에서 가톨릭 신자들을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신자가 아닌 지인들과도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대화 소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매 끼니 때 바치는 기도가 습관이 되니 이제는 더 나아가 삼종기도, 화살 기도도 자주 바치게 되고 그때마다 성호를 긋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더 자주 바치게 되니, 바쁜 하루 중 주님을 만나는 틈새 여유 시간이 그만큼 더 생겼습니다. 운전을 하기 위해 차를 탈 때는 안전운전을 다짐하며, 기쁜 일이 생기면 감사 기도를 위해, 누군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의 건강을 청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성호를 굿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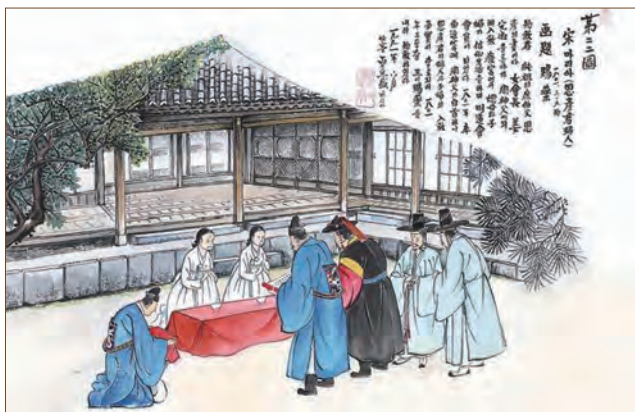
오늘도 기도 중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그리고 예전의 저처럼 성호 굿기를 망설이고 있는 누군가가 저를 보고 용기를 얻기를 바라며 크게 성호를 그어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의 하느님이 항상 제 곁에 계시는 듯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3

죽지 않겠다, 죽여라



정민 베르나르도 |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



*천주교 신자인 데다 주문모 신부를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 송 마리아가 며느리 신 마리아와 함께 사약을 받고 있다.(탁희성 화백, 절두산 순교성지 제공)

초대 교회에서 신자들의 교리 입문은 십계 공부로 시작됩니다. 1801년 신유박해 당시 양성 사람 박점쇠는 십계를 4계와 5계까지 배운 상태에서 체포되었다고 했고, 방성필은 2계와 3계까지 밖에 배우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십계 공부가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신분 낮은 신자들은 글을 몰라 구술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지요.

한 계명마다 수십 가지의 행동 규범이 팔려 있었고, 배운 뒤 문답 시험까지 보아야 했습니다. 김치 가게를 하다가 윤점혜를 통해 입교한 최조이는 십계명을 못 외워 계속 야단을 맞았습니다. 시험에 통과해야 입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5계 ‘살인하지 말라.’는 항목에는 40조항이 넘는 하위 죄목들이 열거됩니다. 여럿 앞에서 남을 욕해 그에게 죽고 싶은 마음을 먹게 하거나, 속으로 남이 죽거나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살인죄에 속했습니다. 자살을 하거나 자신이 제 몸을 해치는 것도 살인죄의 하위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조의 이복동생인 은언군(恩彦君) 이인(李愼, 1754~1801)의 부인 송 마리아와 며느리 신 마리아는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당초 천주교 내부에서조차 두 사람의 입교가 큰 풍파를 몰고 올 것을 염려해 반대가 극심했지요. 하지만 여걸 강원숙이 밀어붙여 밀착 관리 대상으로 두 사람의 입교를 돕고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두 여성은 1801년 3월 12일 주문모 신부님의 자수 직후, 나인 서경의의 고발로 닷새 뒤인 3월 17일에 신부를 숨겨준 죄를 물어 사약을 받습니다. 두 여성은 사약 마시기를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자살이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십계의 가르침을 어길 수 없어서였지요. 결국 집행관은 그녀들의 입을 강제로 벌려 사약을 먹였습니다. ‘차라리 칼을 맞고 죽을지언정 내 손으로 죽지는 않겠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계명을 어겨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차마 견딜 수 없어서였습니다.

뒤에 왕위에 오른 철종은 은언군의 서손(庶孫)이었습니다. 대역 죄인과 천주교 신자 부부의 서손이 국왕에 오를 만큼 조선의 왕계는 이미 심하게 뒤틀려 있었던 셈이지요. 이후 은언군과 부인 송씨 및 며느리 신씨와 관련된 일체의 기록은 왕실에 의해 말소되어 흔적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왕명조차 계명에 어긋난다고 거부한 그녀들의 죽음에서, 십계 교리에 규정된 수백 가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네들이 어떤 성심으로 살았는지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많은 가르침 중 하나라도 어겨 천국에 못 가게 될까 봐 벌벌 떨었고, 죄를 짓고는 고해성사로 죄사함을 얻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십계의 가르침은 어떤 의미입니까? 알지만 지키지 않아도 별 상관없는, 뜨거움을 잃은 조문은 아닌가요?

3월 5일(수)은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로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합니다

'사순 시기'는 재의 수요일(3월 5일)부터 성목요일(4월 17일)의 주님 만찬 미사 전까지이며, 주님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회개와 기도의 시기입니다.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주님 수난 성금요일'에는 금식재와 금육재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13년 3월 6일 홍병철 루가 신부(39세)
- 1944년 3월 9일 이보환 요셉 신부(51세)
- 1954년 3월 5일 김인상 야고보 신부(61세)
- 1975년 3월 5일 황정수 요셉 신부(85세)
- 2016년 3월 7일 김병일 요셉 신부(82세)

교구청 알림

서울대교구 시니어카리타스합창단 단원(남.여) 모집

대상: 성가대 경력이 있는 만 60세~75세(알토, 베이스, 테너)
연습: 매일 첫째~넷째주(금) 14시~16시
곳: 명동성당 범우관 702호 / 문의: 010-5899-3488

향심기도 소개강의

지도: 이승구 신부 / 대상: 누구나
때: 3월 5일부터 매주(수) 14시~15시30분(4주간)
곳: 영성센터A 313호(구 계성여고)
회비: 1만원(4회) / 문의: 010-4565-8898

제20회 가톨릭 환경상 공모

대상: 플라스틱 문제 대응에 기여한 개인 혹은 단체
접수: 3월 18일(화)~5월 1일(목) cbckcee@cbck.kr
문의: 02)460-7622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주교회의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슬픔 속 희망찾기' 3월 유가족 월례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때, 곳: 3월 15일 매일 세번째(토) 10시(자비의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문의: 02)727-2495 한마음하문자살예방센터

병원사목위원회 후원회 미사 안내

병원사목위원회 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가 2025년 3월 14일(금) 오후 3시, 교구청별과 6층 경당에서 있습니다 /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을 입금하셨으나 후원회원 등록을 못하신 분들께서는 꼭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 02)727-2073

2025년 하반기 '사목국 노인사목팀과 함께하는 성지 순례'

1) 프랑스 성모 성지 순례
때: 4월 23일(수)~5월 4일(주일) 총 12일
예상 비용: 550만원 / 인솔: 박민우 신부
주요 순례지: 루르드 · 라 살레트 · 퐁텐(성모 발원지), 리지외(성녀 소화데레사의 고향), 파레 르 모니알(예수 성심 발원지), 푸이 · 로카마두르(검은 성모님 성지) 등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2) 이탈리아 회년 순례
때: 5월 28일(수)~6월 5일(목) 총 9일
예상 비용: 520만원 / 인솔: 나종진 신부
주요 순례지: 바티칸, 카스텔 간돌포(교황님 여름별장), 수비아코(베네딕토 성인의 은수 동굴), 아시시(프란치스코 성인의 고향) 등 / 문의: 1551-1053 CPBC 여행사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통해 사전 접수 / 현장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중 선택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3월 6일(목) 14시~15시, 문화관 2층 소성당(교스트홀) / 집전: 임창재 신부(대만 선교)
문의: 02)727-2407, 2424

직장사목팀 소방사목 안내

1) 가톨릭 소방공무원 (자기돌봄을 위한 1일 피정)
2) 큰사랑 봉사회 회원 모집
대상: 기도 생활과 봉사에 관심 있는 분
3) 가톨릭 의용소방대 모임
대상: 현재 활동중인 신자
문의(접수): 02)727-2081 큰사랑봉사회 총무

가톨릭 영유아(만5세 미만) 부모 교육

주제: 상처 주지 않는 가족 대화법 '사랑할수록 더 소중하게' / 강사: 서혜린 교수(송의여자대학교 아동보육과)
때, 곳: 3월 14일(수) 10시~13시, 영성센터 202호(구 계성여고) & 온라인 교육(ZOOM)-양방향 동시 진행
신청: 2월 24일(월) 10시~3월 11일(화) 4시
유아부 홈페이지(www.catholicinfant.or.kr) 접수
문의(주최): 02)727-2115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순교자현양신심미사와 하루일정 전국순례 안내

1) 순교자현양 신심미사(34회)
때, 곳: 3월 4일(화) 오전 10시, 절두산 순교성지
2) 하루일정 전국순례
때: 3월 15일(토), 3월 16일(주일), 3월 25일(화)
곳: 요당리 성지, 남양 성모성지 / 문의: 02)2269-0413
신청: 3월 3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회비: 1인 6만원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학교사목부

1) 가톨릭학생회에서 뭐하니
친구들과 주도적으로 신앙을 찾아가는 단체,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문의: 02)742-4151 서울대교구 학교사목부
2) 가톨릭 교육자회(CCE) 회원 모집
가톨릭 신앙을 가진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모임
선생님들만을 위한 미사, 특강, 성지순례 안내 및 제공
문의: 02)742-4151 학교사목부(www.kycc.or.kr)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가톨릭상담사자 교육
때: 매주(화) 오후 2시~4시(1, 2학기 총 16주)
회비: 학기당 8만원 / 문의: 02)727-2126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2) 영성심리카데미
교육명: 기도를 시로 쓰기(김해선), 기도학교(허영엽) 신부, 뮤지컬(이슬), 바이올린(김수연), 심리강좌(윤재현), 이태리어 배우기(류재만), 집단상담(최현정), 해금(정겨운)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문의: 02)727-2126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B106호(명동),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 · 예약(문자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3월 17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강준구 스테파노, 박경용 이나시오, 윤정란 라파엘라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민족화해위원회

1)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30주년 감사 미사
광복 50주년,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설립된 서울 민화위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뜻깊은 미사에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제: 정순택 대주교
때, 곳: 3월 12일(수) 11시, 명동대성당
2) 1455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3월 4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날본당': 서울교구 웅진 본당
문의: 02)727-2420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1) '어른을 위한 성, 생명, 사랑이야기' 자연주기법(NFP) 교육 17기
대상: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고 자연주기법을 배우고 싶은 개인, 부부 / 회비: 부부 5만원, 개인 3만원
때: 3월 13일~6월 5일 매주(목) 20시~21시30분(총 10주)
강의방식: 온라인(Zoom) / 모집마감: 3월 7일(금)
2) 참생명학교(생명윤리) 기초 교육 8기
대상: 생명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
때: 3월 14일~5월 9일 매주(금) 20시~21시30분(총 8주간)
모집마감: 3월 7일(금) / 회비: 5만원
문의: 02)727-2353 생명위원회

환경사목위원회

1) 3월 청년 환경모임
고통 받는 공동의 집 지구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들을 위해 실천하고 기도하는 모임에 초대합니다
대상: 환경 파괴의 상황과 기후 위기의 시대에 함께 기도하고 행동할 청년(만 35세 이하)
때, 곳: 3월 8일(토) 16시, 가톨릭회관 613호(명동)
문의(신청):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2) 본당 사제 · 수도자 · 사목위원 생태대성교육
대상: 본당 사제 · 수도자 · 사목위원 및 관심자
내용: "기후위기에에서 기후 회복으로"(조천호 박사, 전국립기상과학원 원장, 대기과학자) / 회칙 「찬미받으소서」와 우리의 실천(이재돈 신부,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때, 곳: 3월 12일(수) 1회차 14시~16시 · 2회차 19시~21시 중 선택,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 회비 없음
신청방법: 본당 별 취합한 교육신청자 명단은 환경사목위원회 이메일(ecocatholic@hanmail.net) 혹은 팩스(02-727-2271)로 접수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박은혜 개인전: 1전시실
이은연구소 20기 졸업전: 2전시실
김시분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2월 28일(금)~3월 9일(주일)

2025 갤러리1898 성미술 청년작가 공모전 안내	공모 주제: 성미술 관련 접수기간: 3월 4일(화)~14일(금) 굿뉴스 및 인스타그램 @gallery1898 참조
------------------------------	---

주교좌 명동대성당 2025년 사순 특강

때, 곳: 3월 17일~4월 7일 매주(월) 19시~20시, 명동대성당 대성전(4주간) / 문의: 02)774-1784
공통주제: 희망의 순례를 걷는 이들

3월 17일(월)	파비아노 레베자니 신부(청소년국 대학교사목부 외국인학생 담당)
3월 24일(월)	박용만(같이 걷는 길 대표, 전 두산그룹 회장)
3월 31일(월)	조한철(배우)
4월 7일(월)	이진희(아파트인 자자, 이상현 어머니)

인준단체 알림

모임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9518-1601
때: 매주(금) 19시~21시45분 / 미사, 강의, 안수
곳: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양창우 신부

이온묵상 사순 피정(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때: 3월 15일(토) 13시30분~16시30분 / 회비: 1만원
곳: 성분도 은혜의 뜰 / 문의: 02)318-2425

글라셋신교수도회 월례 소피정

내용: 영성강의, 묵상, 고해성사,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3월 9일(주일) 11시~15시, 글라셋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2625-8111

효산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우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 010-9363-7784
때, 곳: 3월 14일~17일·4월 25일~28일·5월 16일~19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3지구 매월 셋째주(수) 무료 치유 피정 / 문의: 010-4444-1264
내용: 말씀치유기도, 찬양, 미사, 안수 / 점심 무료 제공
강사: 백준호 신부(프란치스코 수도회 쪽방촌 봉사)
때, 곳: 3월 19일(수) 11시~16시, 갈현동성당 지하강당

전대사은총과 함께 일일 피정

주제: 비움의 길 / 성체조배
때: 3월 9일(주일) 10시~16시(9시 미사 참석 가능)
곳: 스승예수제자수녀회(주최, 전철 4호선 미아역)
문의: 010-9742-3842, 02)984-4801

서울대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설립 50주년 대피정
강사: 이창진 신부 / 미사 주제: 구요비 총대리 주교
때, 곳: 4월 30일(수) 12시~16시, 명동대성당 대성전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주최: 서울대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사순 40일 기도회
내용: 강의, 기도회, 율동, 찬양, 고해성사
때, 곳: 3월 5일~4월 16일 매일 19시~22시(미사 21시),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500·504·651 환승,
천주교성령봉사회 정류장 하차 / 문의: 02)867-7900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주제: 왜 똑같은 품삯을 지불하십니까?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찬양: 고영민
때, 곳: 매일 둘째주(토) 3월 8일 14시~18시, 구산성지
회비: 1만원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토아울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3월 4일 김성대 신부 3월 11일 진홍장 회장

피아골 피정·성지순례 / 문의: 010-3712-8119

피아골·소록도 피정 3월 25일~27일
홍성남 신부 제주교구 4월 7일~10일, 남큐슈 5월
6일~10일, 북해도 7월 21일~25일

12서초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9263-6718
때: 매주(월) 3월 10일 14시~17시 / 미사, 말씀, 안수
곳: 서초동성당 대건관 1층 / 백운철 신부

새남터 순교성지 사순 1일 피정

때: 3월 22일(토) 오전 10시 / 파견미사: 오후 3시
회비: 1만원(중식 제공) / 사전 접수
문의(접수): 070-8672-0327 성지안내소

2025년 대희년 성모님께 드리는 33일 봉헌

곳: 지혜의 샘(부천시 경인로 61-1 / 전철 1호선 중
동역 5분거리) / 문의: 010-3248-9705

1) 성모님께 33일 2차 봉헌: 2월 26일~3월 30일
매일 오전 10시~12시-묵주기도 20단, 매일 오
후 1시~5시-봉헌 기도(강의-기도-파견미사)

2) 성모님께 33일 봉헌 2차 감사 피정: 3월 31일(월)
강사: 이무현 신부, 한영임 회장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때: 생태순례 3월 17일~19일·3월 22일~24일·3월 28
일~30일·4월 2일~4일(주차도 포함)·4월 7일~9일·5월
10일~12일·5월 15일~17일·5월 20일~22일·6월 15일
~17일(주), 주차도포함 성지순례 4월 12일~15일·4월
27일~30일·5월 4일~7일·5월 26일~29일·6월 1일~4
일·9월 9일~12일 / 문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3월 18일~20일·3월 23일~26일(주차도)·3월 29일
~31일·4월 1일~3일·4월 5일~8일(주)·4월 10일~12일
·4월 14일~16일·4월 25일~27일·4월 29일~5월 2일
(주)·5월 4일~6일·5월 9일~11일·5월 13일~15일·5월
17일~20일(주)·5월 21일~23일·5월 24일~26일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3월 8일(토)~9일(주일), 4월 12일(토)~13일(주일)
3박4일	3월 27일(목)~30일(주일), 4월 3일(목)~6일(주일)
8박9일	3월 13일(목)~21일(금), 4월 23일(수)~5월 1일(목)
40일	4월 21일(월)~5월 30일(금)

예수회 생활기도수련원 피정·강좌

곳: 강남구 삼성동 / 문의: 010-3845-3045

기도따라하기 하루 피정	3월 19일 13시30분~16시30분	정규한 신부
‘영신수련 맞닿이기’ 기도실습 10주 강좌	3월 6일(목) 개강 13시30분~16시	
성음악과 함께하는 영신수련	3월~7월 둘째주(토) 14시~16시 개강: 3월 8일 / 회비: 5회 10만원	이보나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일 첫번째(금) 3월 7일 10시~15시30분
수년기와 함께하는 대침묵 피정 3월 28일~30일(2박3일)

단식 피정	4월 9일~13일(4박5일)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300주년 기념경당
성모심기기도와 미사	매일 셋째주(토) 3월 15일 10시~12시
단체 피정(자체 위탁) / 개인 피정 가능	

교육

어른초등학교·중학교 학생 모집(한국여성생활연구원)
교육청 학력 인정 초등학교·중학교과정 / 02)727-2471

스테인드글라스 교육 회원 모집(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3월 18일~4월 1일 매주(화)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1만원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아버지학교 지원자 모집(서울대교구 40기)

때, 곳: 3월 9일~4월 6일 매주(주일) 13시30분
~18시30분(5주간), 중계동성당 / 회비: 10만원
문의(접수): 0505-503-7080(sufather2009@naver.com)

생활성서사 성경학교 ‘요한 복음서’ 강좌

때, 곳: 개강 3월 11일(화) 오전 10시~12시, 생활
성서사(전철 4호선 수유역 근처) / 010-2531-5239
회비: 1학기 13강 6만원(교재비 별도)

거룩한 예수님 수의와 함께하는 마르코복음

때: 매주(목) 10시~12시(미사 포함) / 회비 없음
곳: 성바오로수도회(강북구 송중동) / 문의(접수):
010-6287-9753 김길수 수사(성바오로수도회 영성센터)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민화(民畵) 기초반 수강생 모집

때, 곳: 3월 14일~6월 13일 매주(금) 10시~13시(12주
과정), 서강대학교 김대건관 강의실 / 회비: 40만원
문의: 02)705-8718(https://sccc.sogang.ac.kr)

직장인을 위한 축복받은 성경읽기 모집(가톨릭성서모임)

가톨릭성서모임 그룹형 성경통독 / 문의: 02)824-4363
그룹: 신명기 읽기반, 사도행전 읽기반
때: (월·화·수·주일) 오후 8시 비대면(3월 시작)
접수: 가톨릭성서모임 홈페이지(biblemove.com)

전진산 영성센터 인문학 강좌 / 문의: 02)726-0700

곳: 전진산 영성센터(명동) / www.ijscen.or.kr

1) ‘참나’를 찾아가는 동학의 마음공부

때: 4월 2일~23일 매주(수) 오후 2시~4시(4주)

2) 빨간 모자와 푸른 수염 그리고 신데렐라

때: 4월 4일~5월 9일 매주(금) 오전 10시~12시(6주)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모집 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 수업내용: 검
정고시·수능준비, 진로탐색·자격증 취득(요리·제
과·사진·바리스타·포토샵 등), 자기계발(기타·원어민
영어회화·토론·글쓰기·필라테스·일본어·보컬·작곡 등)
검정고시·수능지도 봉사자 수시 모집 중(1365 홈페
이지 참조) / 문의: 02)382-5652 청소년문화공간JU

신부와 함께하는 영성독서 프로그램(영성독서지 도사 양성 포함) / 문의: 010-8477-6688

내용: 일반독서, 인문독서, 영적독서(각 과정 6주)
수료증이나 자격증 수여 / 대상: 신자들의 영적
성숙 및 교회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
때: 3월 6일부터 매주(목) 19시30분~21시30분
곳: 명동대성당 교육관 304호 / 회비: 각 단계별 10만원
주최: 가톨릭독서아카데미(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4지구 길음동 성령기도회 사순특강 / 문의: 010-9248-8151

때, 곳: 3월 매주(화) 19시30분, 소성당 / 말씀, 치유, 안수

3월 4일	이상기	3월 11일	이선희
3월 18일	김혜숙	3월 25일	마진우 신부

불학기 마리아학교 수강자 모집

내용: 성모님에 관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배움, 33일 봉헌 / 접수: 가톨릭회관 311호

문의: 010-2724-4819 서울 마리아 학교

대면반	3월 4일~8월 16일 매주(화) 14시~16시(6개월 과정) 곳: 가톨릭회관 205호 / 핸드폰으로 신청함
Zoom반	3월 6일~8월 16일 매주(목) 20시~22시

'기도하며 기도를 배웁시다' 성체조배 봄 영성학교

때, 곳: 매주(수) 14시~16시, 영성센터(명동) B201호
문의: 02)773-3030 서울대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3월 19일	김현덕 신부	3월 26일	강한수 신부
4월 2일	이은형 신부	4월 9일	장궁선 신부
4월 16일	안내숙 회장, 임승철 신부	회비: 5만원	

예수회센터 불학기 강좌

3월 개강 / 현장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kr>)

(월)	예수회센터 월요 피정(무료)	최시영 신부
(화)	마태오의 예수이야기-토라, 제국, 하느님의 나라	박상훈 신부
(화)	성경대학-사도시대 초대교회의 삶과 영성3	송봉도 신부
(수)	꿈-하느님의 귀한 선물	홍기영 교수
(수)	단테 '신곡' 지옥편-배신과 우정	김산준 신부
(목)	구약성경 아카데미-창세기 해설	주원준박사
(목)	영성과 심리의 통합 네번째 길	최지원수녀

모집

시스티나 시니어 합창 단원 모집

곳: 신촌 / 그레고리오 성가, 구노 미사곡 연주
지휘: 이호중 교수 / 문의: 010-7257-4255

국악성가 한길합창단 단원 모집

때, 곳: 매주(금) 19시, 혜화동 / 문의: 010-8932-0910
지도: 강수근 신부 / 오디오곡: 가톨릭성가 중 1곡

미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3월 7일(금) 14시~16시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문의: 02)929-2977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와 성모신심미사

때: 둘째주(토) 3월 8일 10시~13시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문의: 02)727-2489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새사제 미사

때, 곳: 3월 6일(목) 오후 3시,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B3 콘솔레이션홀 / 집전: 2025년 새사제 미사 후 안수가 있습니다 / 문의: 02)3147-2402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성서인문학 강좌

대상: 후원회원, 성서인문학 강좌에 관심있는 분
때, 곳: 3월 5일(수) 14시(미사)·15시(강좌), 명동대 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강사: 김병수 신부
문의: 02)3673-2525 미사, 02)3673-2528 강좌

안내

성라파엘상담소 / 문의: 070-4278-7573

우울, 불안, 인간관계 어려움 / 심리검사
법정 저소득 가정 무료 상담 / 안양(중앙성당) 1만원
·분당(구미동성당) 2만원·서울 신월동 0~2만원

까리파스 알코올회복센터

알코올의존자 당사자 주·야간 교육, 가족교육 운영
자녀교육: 고통받고 있는 성인자녀를 위한 교육-매주(수) 19시 / 문의: 02)521-2364
회복을 위해 까리파스알코올회복센터와 함께해요

코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상담자)

강남구 성요셉유치원 50주년 안내

50주년 행사를 준비하며 1회~49회(1975~2023)
졸업생들의 유치원 생활 모습이 담긴 추억 사진을 모집합니다 졸업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내는 곳: stjosep2017@naver.com
문의: 02)543-8819, 010-5333-8819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봉안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천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꽃 순교성지, 서지곶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상담 가능

전문 심리상담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부부, 가족간의 갈등, 대인기피 등 마음투자 정부지원금 신청 해당 기관
---------	--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대인관계, 부부, 유학생, 사별, 우울,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 / 문의: 010-9146-7654

직원모집

가톨릭대 신학대학 사제식당 조리원(계약직) 모집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 공지사항-모집공고 참조 / 문의: 02)740-9707~8

H2빌 생활재활교사(정규직) 모집 / 문의: 02)6925-2366

곳: 전철 5호선 방화역 인근 / 중증장애인가족
시설 H2빌 생활재활교사·사회복지사 모집

가톨릭청소년이동센터 서울아지트 직원 모집

분야: 후원자 회계 및 응대 담당 / 이메일: ajit@ajit.or.kr
후원자 회계 및 응대 관련 경력 우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www.ajit.or.kr>) 참조

(재)2027서울WYD조직위 직원 모집

업무: 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1명, 행사 기획 1명
서류: 홈페이지 다운로드 / 이메일 문의
3월 16일까지 이메일(seoul2027@wydseoul.org) 접수
홈페이지(www.wydseoul.org) 공지 참조

성수동성당 방호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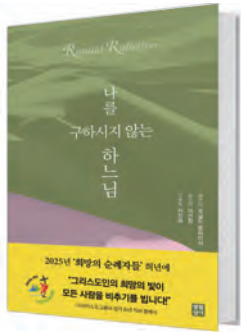
분야: 방호원 1명(계약직)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신자로 시설관리,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유자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채용시까지 사무실 방문·우편(우 04774, 성동구
성덕정길23 성수동성당 사무실) 및 이메일(kyeon@seoul.catholic.kr) 접수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제출 서류는 채용 확정 후 안전하게 폐기하겠습니다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분야: ① 시설관리자(역삼동) ○명(소방안전·도시가스
안전 관리자 자격증 소지자) ② 세탁근무자(수유동) ○명
③ 주방근무자(성북동) ○명 / 이메일 문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
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3월 9일(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
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가르멜 수도회	3월 29일(토)	수도원(혜화동)	010-9528-2625 모세 신부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매일 첫째주(주일) 14시	성 보나벤투라 수도원(혜화동)	010-4344-1997 권정대 수사신부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개별적 협의	수녀원(미아동)	010-5604-1882
성심수녀회	3월 15일(토) 15시~17시	본원(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5696-2331
천주교서울교구제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한국외방선교회	수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나를 구하지 않는
하느님

로널드 롤라이저 지음
생활성서사 | 232쪽 | 1만4천원
문의: 02)945-5987

시대를 대표하는 영성 작가 로널드 롤라이저 신부가 오랜 묵상과 기도 안에서 수많은 이들의 절절한 체험을 녹여 낸 사순 시기 묵상집이다. 예수님의 수난기를 읽고 해설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쉽지만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놀라운 영성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 준다.



신간

명언 속
숨은 복음 찾기

배기한 지음
헤르문하우스 | 328쪽 | 1만8천원
문의: 031)8071-0088

이 책은 일상의 명언들을 복음의 가르침과 연결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안내서다. 독자들이 친숙한 명언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인도한다. 특히 복음을 확장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영감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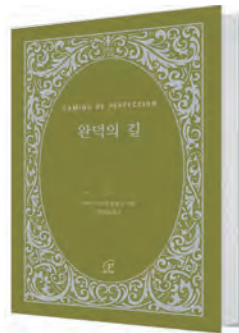


신간

예수님의 기도

후안 로페즈 베르가라 지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139쪽 | 8천원
문의: 02)460-7582~3

2025년 정기 회년을 준비하며, 교황청 복음화부 세계복음화부서에서는 발간한 8권으로 된 기도예에 관한 소책자 가운데 하나이다. 저자는 뛰어난 영성과 섬세한 감수성으로 성경의 주요 장면들을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생생히 재현하여 묘사함으로써, 성경의 행간을 읽고 묵상하도록 도와준다.



신간

완덕의 길
(개정판)

예수의 성녀 데레사 지음
바오로딸 | 408쪽 | 1만5천원
문의: 02)944-0944

이 책은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저서로, 성녀는 기도예에 대한 가르침을 요청하는 가르멜 수도회 회원들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권고부터 신비 체험에 이르기까지, 겸손하면서도 대담하고 솔직한 이야기체로 가르침을 전한다. 수많은 신학도와 수도자, 신자들에게 사랑받아 온 대표적인 영성 고전이다.



음악 피정

2025년 사순 음악 피정
성심수녀회

때, 곳: 3월 29일(토) 16시, 예수성심성당(서울 용산구 원효로 19길 49) / 입장권: 2만원
문의(신청): 010-5945-7025(문자), @bara_youthspace(인스타그램 DM)

회년을 맞이하여 '사순 음악 피정'이 준비됐다. 이번 음악 피정은 생활성가, 성경과 함께 예수님의 수난 여정을 묵상하며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구성을 갖췄다. 피정을 진행하는 예수성심성당은 서울 순례길 중 '일치의 길'에 포함되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이번 피정 안에서 기도와 묵상을 함께하며 더욱 풍요로운 영적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연극

코미디 연극 마트로시카

때: 3월 19일~30일 (월-금) 19시30분, (토) 15시-18시(주일) 15시 / 휴무 없음
곳: 대학로선돌극장 / 입장권: 전석 4만원
문의: 070)7620-3163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참조시 주보 1부 4명 40% 할인

연극 '마트로시카'는 나쁜 상황들이 휘몰아치듯 벌어지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공연을 반드시 올려야 하는 단원들과 극단 대표가 고군분투하는 내용이다. "공연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극단 대표와 단원들이 좌충우돌 공연을 이끌어가는 내용이 재밌기도 하고 인상 깊어 제작을 하게 되었다."고 제작자는 전한다.